

#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Kyoung-Ha Kim  
Division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와 N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적 통계, Pearson 상관계수, Baron과 Kenny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마인드셋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셀프리더십은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간호교육현장에서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ory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4-year universities in G and N c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May 2022.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by Baron and Kenn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growth mindset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leadership. Second, growth mindset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Third, self-leadership had a fu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ory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ategies to promote a growth mindset and self-leadership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he field of nursing educ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career preparatory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Growth Mindset, Self-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Nursing Students

### 1. 서론

진로발달 과정에서 대학생 시기는 전공 분야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탐색, 진로와 관련된 직무능

력 습득, 구체적인 직업의 선택 등 진로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이다[1].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과 특성상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됨으로 대학 생활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본 연구는 "2022년도 송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A2022-30).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a Kim(Songwon University)

email: gh6081@hanmail.net

Received July 8, 2022

Revised August 10,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않고[2], 자신의 능력이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에 맞춰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3,4].

대학생 시기에 진로 준비가 미흡한 간호대학생은 취업 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책임감의 결여를 가져오고 이직으로 이어지게 된다[3]. 1년 이내의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병원간호사회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47.7%로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5].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9.8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6] 정부는 간호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08년부터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함으로써 신규간호사의 공급을 증가시켜왔다[7]. 그러나 신규간호사의 공급이 증가된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간호사의 이직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간호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적 측면이 아닌 행동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8]. 대학생 시기에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이 뛰어나고[9], 취업 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적극 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이에 간호대학생이 취업 후 성공적으로 직업 적응에 이를 수 있도록 대학 시기에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고려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마인드셋에 따라 동일 과업에 대해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11] 본 연구에서는 마인드셋에 관심을 두었다. 마인드셋은 자신의 능력, 지능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과 연습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성장마인드셋과 자신의 능력과 지능은 항구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고정마인드셋으로 구분된다[11].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직면한 진로발달 과업과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도와 자원이 풍부하며[12], 자신이 결정한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진로준비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간호대학생 대상의

성장마인드셋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가 극소수 진행되었고 진로준비행동과의 인과성 연구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겠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 중요하며 이러한 행동은 자발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므로[8], 자신의 진로목표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행사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이 중요하다[1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15,16]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의 예측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서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실증적 변인이 됨을 확인한 상태에서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국외 연구 중 대학생 대상은 아니지만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조사한 직장인 대상의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이 높으면 셀프리더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장마인드셋이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성장마인드셋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셀프리더십이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와 N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관측 변인 9개로 산출한 결과 166개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편의 표집 하였으며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19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4부를 제외한 18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서면 및 구두로 설명하였고, 학과회의를 거쳐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을 득한 후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비밀 보장, 개인 정보 보호, 연구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설명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명문을 읽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성장마인드셋

성장마인드셋 측정도구는 Dweck [11]이 개발한 마인드셋 측정도구를 Park [18]이 보완한 것으로 총 8문항의 마인드셋 측정도구 중 성장마인드셋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마인드셋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였다.

### 2.2.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Manz [19]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 [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였다.

### 2.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도구는 Kim과 Kim [8]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척도 16문항에 Lee [21]가 2문항을 추가한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

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였다.

##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 파악을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22]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3세 이하가 76%로 많았고, 성별은 여자가 77%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4학년이 31%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30%, 2학년이 22%, 1학년이 17% 순 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유리한 취업이 47%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 가장 많았고 적성과 흥미 34%, 주위 권유 1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6)

Characteristics	Range	n(%)
Age	≤ 23	141(75.8)
	≥ 24	45(24.2)
Sex	Female	143(76.9)
	Male	43(23.1)
Grade	1st	32(17.3)
	2nd	41(22.0)
	3rd	56(30.1)
	4th	57(30.6)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63(33.9)
	Stable job	87(46.8)
	Another's advice	36(19.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68(36.6)
	Moderate	108(58.1)
	Dissatisfaction	10(5.3)
Work experience	Yes	137(73.7)
	No	49(26.3)

다. 전공만족은 보통이 58%, 만족이 37%, 불만족이 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경험은 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3.2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셀프리더십, 진로 준비 행동 간 상관관계

성장마인드셋은 셀프리더십( $r=.417, p<.001$ )과 정적상관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r=.503, p<.001$ )은 정적상관을,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 $r=.281, p<.001$ )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86)

Variables	1 r(p)	2 r(p)	3 r(p)
Growth mindset	1		
Self-leadership	.417 ( $<.001$ )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81 ( $<.001$ )	.503 ( $<.001$ )	1

1. Growth mindset, 2. Self-leadership,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3.3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Model 1)는 성장마인드셋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Model 2)는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Model 3)는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Fig. 1과 Table 3과 같다. 1단계에서 회귀모형은  $F=38.658(p<.001)$ 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적합하였고, 성장마인드셋이 셀프리더십( $\beta=.417,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여 조건이 충족되었다. 2단계에서 회귀모형은  $F=15.786(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준비행동( $\beta=.281, 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보여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는 다중회귀분석이므로 우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는 가장 낮은 값이 .826으로 모두 .10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1.210으로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 독립변수들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 Watson 지수가 1.934( $1.862 < d < 2.138$ )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은  $F=32.004(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준비행동( $\beta=.087, p=.218$ )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 $\beta=.467, 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보여 조건이 충족되었다.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서  $\beta=.281(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3단계에서  $\beta=.087(p=.218)$ 로 그 값이 감소하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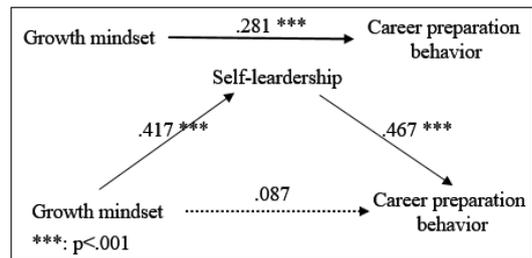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between variables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between variables

(N=186)

Model	Variables	B	SE	$\beta$	t (p)	F (p)	$R^2$	Durbin Watson
1	Growth mindset -> Self-leadership	.346	.056	.417	6.218 ( $<.001$ )	38.658 ( $<.001$ )	.174	-
2	Growth mindse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68	.067	.281	3.973 ( $<.001$ )	15.786 ( $<.001$ )	.079	-
3	Growth mindse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83	.067	.087	3.973 (.218)	32.004 ( $<.001$ )	.259	1.934
	Self-leadership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37	.080	.467	6.670 ( $<.001$ )			

Z=4.594( $<.001$ )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셀프리더십이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 [23]를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완전매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Z=4.207$ ,  $p<.001$ ).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을 나타내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인 Kim [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은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직장인 대상의 연구인 Kujawa와 Kaminski [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도 정적상관을 나타내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과 Park [15]의 연구, Kim과 Byun [1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믿음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특성이 강하며, 이러한 특성이 강한 간호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두 변인 간 인과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비교 고찰에 한계가 따른다. 향후 두 변인 간 인과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추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장마인드셋은 자신의 노력과 훈련으로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이므로 한 개인의 긍정심리라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셀프리더십과의 인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다는 연구[24]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다는 연구[25]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장마인드셋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인 Kim과 Choi [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본 연구와 대학생 대상의 Kim과 Choi [13]의 연구 두 편에 불과하므로, 향후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더욱 풍부한 고찰이 가능할 것이고,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인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사료 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장마인드셋은 한 개인의 긍정심리이므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발달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고찰했을 때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연구결과[14,26,27]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적인 수행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성장마인드셋을 함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사이에서 셀프리더십이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변인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없으므로 셀프리더십이 두 변인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단정짓는데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에서 성장마인드셋 수준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아지고, 셀프리더십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성장마인드셋과 셀프리더십 촉진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하겠다. 일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이 성장마인드셋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28]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모 애착을 높이는 중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의 촉진을 꾀할 수 있겠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이 성장마인드셋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Cho 등[29]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인 메타인지, 감성지능 및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간호역량 특성인 전문직 자아개념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는 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성장마인드셋의 영향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였으며,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로 그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로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따르므로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H. J. Seo, J. J. Youn,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a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3, No.3, pp.105-125, 2014.
- [2] K. A. Lee,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33, No.3, pp.42-49, 2015.  
DOI: <https://doi.org/10.16952/pns.2015.12.1.42>
- [3] B. M. Im, J. M. Park, M. K. Kim, S. Y. Kim, J. H. Maeng, L. L. Lee, K. H. Kang,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urnover Experience of Novice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4, pp.313-322, 2015.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5.24.4.313>
- [4] S. K. Park, K. M. Cho, "Clinical Career Preferences and Associ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Vol.33, No.3, pp.107-122, 2016.
- [5] Hospital Nurses Associatin,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2021,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bo\\_table=board1&wr\\_id=8103](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bo_table=board1&wr_id=8103) (accessed June 20, 2022)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Year Book 2020, 2021, [http://www.mohw.go.kr/react/jb/si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1682](http://www.mohw.go.kr/react/jb/si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1682) (accessed June 20, 2022)
- [7] H. J. Bae, J. H. Kim, "Impact of Increasing an Enrollment Quota in Nursing Schools on Nurse Staffing Level in Loc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 pp.3301-3316,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6.3301>
- [8]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311-333, 1997.
- [9] O. S. Oh,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other-child conflict on peer relationship, school-lif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6, No.4, pp.1-27, 2019.  
DOI: <https://doi.org/10.34244/JFOYS.2019.16.4.1>
- [10] S. U. O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Pre-engineering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Job Value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Job and Employment Service*, Vol.14, No.2, pp.17-34, 2019.
- [11] C. S. Dweck,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p.288, Random House, 2006.
- [12] J. Y. Lee,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Target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5, No.1, pp.41-56, 2022.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2.3.35.1.41>
- [13] H. M. Kim, A. R.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25, No.1, pp.129-144, 2022.  
DOI: <https://doi.org/10.55586/kewms.2022.25.1.129>
- [14] K. H. Kim,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9, pp.307-314,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9.307>
- [15] S. J. Park, I. S.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3, pp.67-87, 2021.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1.11.3.004>
- [16] M. H. Kim,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137-145, 2021.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1.7.4.137>
- [17] W. Kujawa, S. Kaminski, "Self-leadership and Growth Mindset as Mutually Supportive Determinants of Behaviors", *Journal of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Vol.6, No.4, pp.43-56, 2019.

DOI: <https://doi.org/10.12775/JCRL.2019.014>

- [18] J. S.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50, 2017.
- [19]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115, Prentice Hall, 1983.
- [20]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p.41-42, 2002.
- [21] M. S. Lee, *Analyse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e, Korea, pp.30, 2003.
- [22]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23]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13, pp.290-321,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 [24] Y. H. Lee, K. O. Park, "The Effect of Learning-flow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on self-leadership",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5, pp. 455-462, 2022.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455>
- [25] A. L. Kim,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4, pp.2247-2261,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4.2247>
- [26] Y. J. Ko, N. S. Kim,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4, pp.301-308,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4.301>
- [27] H. S. Yu,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4, pp.1843-1854, 2021.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4.1843>
- [28] J. Y. Lee,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Target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5, No.1, pp.41-56, 2022.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2.3.35.1.41>
- [29] M. H. Cho, I. J. Jung, M. K. Park, "Variables related to

self-leadership of Korea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3, pp.213-224,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13>

김 경 하(Kyo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인간성장발달